유럽의 종교개혁.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미하엘 벨커(Michael Welker)

지난 몇 년동안 우리는 한 권의 위대한 책을 준비해 왔다. 그것은 “유럽 종교개혁. 유럽의 종교개혁 도시들과 그 종교개혁가들”이라는 책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47명의 전문적인 종교개혁 역사가들을 모을 수 있었고, 48개의 종교개혁 도시들을 - 스페인으로부터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스코틀랜드로부터 동서유럽에 이르기까지 - 사진과 함께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달에 독일어판이 출판된다. 영어 번역본은 이미 완성되었고, 한국어 번역은 진행중이다. 48개의 종교개혁 도시들이 500년 전의 종교개혁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가? 나는 13개의 주제로 나누어 그 동안 획득된 인식들을 종합정리해 보고자 한다.

I. 종교개혁의 정신적 핵심: 하나님과 그의 계시에 대한 신뢰

마틴 루터가 시편46편에 기대어 지었던 매우 유명한 종교개혁 노래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이요,
좋은 병기와 방패이시다.
우리가 지금 만난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도우신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대단히 결정적이며 중심을 이루는 것은 역사 속에 그리고 인간의 경험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의 계시에 대한 집중이다. 즉, 우리의 견고한 성이요 우리의 좋은 무기이자 방패이신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를 지지해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에게 다소 흥미로운 신에 관한 사상이나 종교적 감정들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견고한 기반 위에 종교개혁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각인되어 있으며, 인간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으로 깊이 새겨져 있다. 종교개혁의 좋은 소식은 다음과 같이 분명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인간의 말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 비상시에는 인간의 말씀에 대항하는 하

- 나님의 말씀!
- 인간의 가르침에 앞서는 성서의 증언들!
- 인간의 확신들 또는 견해들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진리!
- 면죄부에 대한 신뢰와 인간 자신의 선행에 대항하는 하나님에 의한 구원 즉,
-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획득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믿음!

II.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고도 자비로운 접근에 대한 신뢰

유명한 종교개혁 노래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네,
심지어 우리는 곧 잃어버린 자들이네;
우리를 위해 의로우신 그가 싸우시네,
그를 하나님은 스스로 택하셨네.
그 분이 누구신가 묻는다면?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그리고 다른 하나님은 없네,
전장은 분명 그의 것이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관심을 종교개혁은 강조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고, 믿음으로 얻게 된다(참고. 하이델베르크 도시에 관하여 크리스토프 슈트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가까이 와서, 인간을 위로하고 바로 세우며 높이고자 한다.

- 인간적이며 자비롭고, 고통당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
- 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신다.
-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증거자들을 감동시켜서
-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권위에 참여하게 한다 - 또한 교황의 권위와 황제의
- 권위에도 대항하여!

III.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하면서도 성숙한 신앙에 대한 집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함으로써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엘리트들과 학문적인 전문가들만 접근할 수 있는 신에 관한 사변적인 생각들을 거부한다. 천재적인 수학자요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rhead)가 인식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은 영적이며 정신적인 차원에서 후에 현대 자연과학이 수행했던 다음과 같은 것에까지 도달하였다: 즉, 실제와 진리에 대한 인식 추구는 경험 즉, 비판적이고 자기비판적인 경험을 통해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며 위대한 교육운동과 해방운동으로 이어졌다.

IV. 종교개혁을 위하여 출판과 교육이 갖는 의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편지들을 위해 사용되었던 인쇄술, 그 당시로서는 비교적 새로웠던 인쇄술이 종교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수행했던 큰 역할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그 인쇄술이 자국어로 생산했던 전단지들과 책들도 마찬가지이다. 아욱스부르크(Augsburg)에서만도 1518년과 1530년 사이에 457개가 넘는 루터문서가 약 50만부 넘게 인쇄되었다. 바젤, 엠덴, 함부르크, 헤르본, 헤르만슈타트(시비우), 크론슈타트, 라이덴, 뉘른베르크, 슈파이어, 스톡홀름, 울름, 우라흐, 빈, 보름스에서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서 출판업자들과 인쇄소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종종 감동적인 그림들과 함께 인쇄된 전단지들은 사람들을 각성시켰다. 인쇄된 설교들과 논문들은 종교개혁의 기쁜 소식을 백성들 사이에 퍼뜨렸다. 요리문답들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널리 - 부분적으로는 전 세계로 - 퍼뜨렸다. 수많은 나라들에서 모국어로 성서가 번역되었다. 새로운 교회 노래들과 찬송가들이 인쇄되었다.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언어능력과 창조력에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종종 번역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자신들의 성서번역으로 국가언어의 발전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남겼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 영국에서는 윌리엄 틴데일, 프랑스에서는 삐에르-로베르트 올리베탄, 스페인에서는 카시오도로 드 레이나, 스웨덴에서는 페트리 형제, 핀란드에서는 미하엘 아그리콜라, 헝가리에서는 가스파 카롤리, 슬로베니아에서는 프리머스 트루버가 그들이다. 요한네스 부겐하겐의 저지방 독일어로 이루어진 성서번역은 무엇보다 덴마크의 성서를 위한 모범이 되었다.

V. 교육과 해방을 위하여 제도적으로도 도입된 운동으로서의 종교개혁

그 당시 종교개혁에 누구보다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은 교육 받았고 해방적인 정신을 가진 중산층이었다. 새로운 소식의 중심지요 소통의 중심지로서 대도시들은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교육운동들의 전시장이었다. 예를 들어 뉘른베르크 주민들 가운데 40퍼센트가 글을 읽을 수 있었다. 도시들에서는 지성인들 단체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들은 로테르담(Rotterdam)의 에라스무스(Erasmus)가 지녔던 인문주의적 이상을 추종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열려있었다. 과장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문주의 없이는 종교개혁 없다!” (베른트 묄러, Bernd Moeller). 종종 광범위한 통신망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단체들은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널리 유포시키고 촉진시켰다. 그러나 도시들에서만 종교개혁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신앙심 깊은 영주들도 종교개혁에 합류하여 자신들의 영지에서 종교개혁을 장려하였다. 결국 종교개혁은 모든 계층의 국민들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교육운동으로서 종교개혁은 학교들과 “고등교육 학교들”이 설립되는 일과 학제들이 근본적으로 갱신되는 일에 큰 가치를 두었다. 이렇게 강력한 연대적 참여의 원동력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접근하는 길을 지지하겠다는 의지였으며, - 단지 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 모든 사람을 교육함으로써 사람들의 자유와 선한 사회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예를 들어 슈베비쉬 할 지역의 요한네스 브렌츠(Johannes Brenz)는 자신의 저술들을 통하여 어린이를 존중할 것을 가르쳤고 공감적인 교육학을 요청하였다. 루터가 “독일 귀족에게 고함”(1524)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요구하였던 것처럼, 브렌츠는 모든 사회적 계층 출신의 남녀 어린이들을 위한 독일어 학교와 라틴어 학교를 설립하였다. 1526년 뉘른베르크에서는 멜랑히톤에 영감을 얻어 새로운 학교제도가 창조되었다. 그것이 바로 현재 독일의 김나지움(Gymnasium)이다. 1541년 크론슈타트(Kronstadt)에서는 종교개혁가 혼테루스(Honterus)가 서유럽 전체에서 처음으로 인문학 김나지움을 설립하였다.

1527년 마부르크(Marburg)에서 필립 폰 헤센(Philipp von Hessen)은 최초의 개신교 대학을 설립하였다. “헤르본의 대학교”는 신학 뿐만 아니라 철학과 자연과학의 연구와 가르침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젊고 왕성한 학자들과 지식인들이(헤르본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카스파 올레비안, Caspar Olevian이었다) 대학에 초빙되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위대했던 일은 대학기관들이 전 유럽에 걸쳐 사용되고 학제간 영향력을 미

친 것이었다. 종교개혁은 신학, 철학, 역사학, 법학 그리고 정치학에 장기간에 걸쳐 영향력을 미친 초기근대 대학의 원동력이 되었다.

집중화되고 심화된 교육과 교육의지는 더욱 강력해진 인간의 자의식을 동반하게 되었고, 그러한 자의식은 적어도 장기간에 걸쳐 정치-자유적인 결실들을 맺게 된다. 성직자들은 교회와 신학에 있어서 새로운 자유에 감동하였다. 법조인들은 정치적인 자유의 잠재력을 보았고, 그러한 자유의 잠재력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 뿐만 아니라 또한 상업적인 지도층, 공업자들 그리고 길드들도 종교개혁의 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새롭게 획득한 자유를 지키는 일에 기여하였다. 이때 많은 곳에서 반사제주의적 태도들이 강화되었는데, 그러한 태도는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이미 성립된 것이었다. 정치, 경제, 조세에 있어서 사제들이 누렸던 특권들은 비난받아 폐기되었다. 교회의 철저한 갱신에 대한 염원이 더 이상 길게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

당연히 기대할 수 있듯이 - 특히 종교개혁이 지방영주들의 보호를 누릴 수 없었던 곳에서 -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에 대한 다양한 저항이 있었고, 그들에 대한 핍박과 공개적인 처형도 일어났다. 종교개혁 운동은 -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의 선구자들처럼 - 처음부터 순교자들의 운동이기도 하였다. 많은 곳에서, 특히 서 유럽의 나라들에서(예를 들어 세비야[Sevilla], 바야돌리드[Valladolid], 베니스[Venedig])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을 “비밀-프로테스탄트들”(Kryptoprotestanten)로 여길 수 밖에 없었고, 비밀스러운 연락망으로 조직할 수 밖에 없었다.

VI. 종교개혁과 권력분배: 의회, 길드, 왕이 개입하다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세계의 지도층들은 교회의 영역과 관심사들을 감독하는 일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 때 많은 곳에서는 심지어 교황이 그들을 후원하거나 적어도 용인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교황은 예를 들어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베른 시의회에 성직자들의 직책을 직접 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많은 곳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의 결과들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시민의 90%가 이미 개신교인들이었던 아욱스부르크에서는 의회와 평신도들이 성직의 직책을 주는 과제를 넘겨받았고,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분쟁들을 중재하는 과제도 넘겨 받았으며, 설교가 성서에 근거한 것이며 복음적인 것이 되도록 돌보는 과제도 넘겨 받았다.

의회의 신중한 책략적 행동은(예를 들어, 아욱스부르크, 슈파이어, 보름스, 그러나 또한 스위스의 몇몇 도시들[취리히, 베른], 그리고 스웨덴의 리블란드[리가, 레발/탈린] 등지에서) 국가법적으로 불안정할 때 일정기간, 때로는 장기간에 걸쳐서도 평화적이면서도 스스로 이중-교단적인 - 즉, 개신교와 "옛신앙의" 단체들과 공동체들 둘 모두를 인정하는 - 발전을 조성할 수 있었다. 몇몇 곳에서는 교회와 정치 (그러나 또한 법과 학문도 해당됨) 사이에 조심스럽게 실제적으로 도입된 권력분배가 전제군주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코펜하겐과 스톡홀름에서는 왕이 자신의 귀족 정적들과 성숙한 시민 정적들을 해치우기 위하여 또는 자신을 준-종교적 성체로 드려서 스스로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적인 분위기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리용(Lyon)에서는 위그노교도들이 삐에르 비레(Pierre Viret)의 영향 아래 리용시를 무력으로 "제2의 제네바"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한 발언들은 - 무엇보다도 몇몇 로마-가톨릭의 저자들에게 있어서 - 종교개혁이 교회를 철저히 비권력화 하였고 정치적인 통치 아래 무릎꿇게 하였다는 생각을 일깨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분배라는 장기적인 과정이 종교와 정치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 정치, 법, 학문/교육 사이에도 작동하였으며, 에큐메니컬 차원의 진리추구라는 장기적인 과정에도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세계개방적인 신앙심과 자유-민주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VII. 공적신학: 설교와 회담의 중요성

종교개혁은 하나의 "독서운동이요 설교운동"이었다(베른트 함, Berndt Hamm). 이제 예배도 영적, 윤리적, 정치적 교육에 봉사해야 했다. 신앙문제들과 교회-정치적인 관계들에 관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했다. 많은 곳에서 시의회는 종교개혁의 기쁜소식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신학적이며 성서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설교"를 장려하였다. 공적으로 일어난 결과는 막대한 것이었다.

새로운 사상들의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토론들"(Disputationen)이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모범으로서 1518년 저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회담이 유효한데, 이 회담을 통해서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하는 것을 더 철저히 하였고, 수많은 미래의 종교개혁자들을 감동시켰고 또한 얻을 수 있었다. 계속되는 중요한 공적 회담들은 1523년의 취리히, 1524년의 브레슬라우의 회담(그곳에서 종교개혁을 도입하기 위한 회담)

이었다. 또한 1524년 멤밍엔의 종교회담, 1525년 뉘른베르크의 종교회담이 있으며, 또한 1527년과 1528년 함부르크의 회담이 있다. 그리고 1527년 스톡홀름에서, 1528년 베른에서(베른 10 테제), 게다가 1532년 베른의 노회, 1529년 플렌스부르크에서 회담이 있었다. 1524년 울름(Ulm)에서 열린 도시협의회는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국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종교개혁적인 신앙고백을 제시하였다. 1530년 울름에서는 1865명의 유권자 시민들 가운데 1621명이 종교개혁 도입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였다. “1520년대에 공적으로 또는 절반의 공적으로 진행되었던 회담들에서 옛신앙의 사람들은[즉, 옛 신앙을 확고히 붙드는 사람들] 패배하여 전장을 떠났다.”(페터 블릭클레[Peter Blickle], 멤밍엔 시에 관하여).

VIII. 요리문답들 - 교회헌법들 - 삶의 실천 갱신

종교개혁의 도입과 함께 많은 지역들에서 삶과 가르침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교회헌법들(그 첫번째 것이 이미 1525년 스트랄순트에서 요한네스 에피누스(Johannes Aepinus)가 만든 것이었다), 요리문답들, 그리고 신앙의 주요내용들의 요약본들이 생겨났다. 루터의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 (1528/29) 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36), 그러나 또한 크랜머 토마스의 *공공 기도를 위한 책(Book of Common Prayer)*(1549)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 세계로 유포된 영적인 장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오늘날 비교적 덜 알려진 요리문답서들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성공하였다. 슈베비슈 할 지역의 요한네스 브렌츠가 작성한 세 개의 요리문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500판을 출간하였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의 삶과 가르침만 갱신하려고 애썼을 뿐만 아니라, 구제 문화 즉, 디아코니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가난한자들 구호사업, 환자에 대한 봉사, 고아 돌봄(예를 들어 1522년 뉘른베르크의 기부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종교개혁가들은 가난구호사업을 교회의 영역으로부터 세상의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넓혀갔다. 함부르크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서는 12명의 시민 “디아콘”들의 감독하에 가난한 자들과 환자들을 돌보고 위하여 계좌가 개설되었다. 그리스도교적-동지애적인 정신이 교회의 사안과 학교시설, 그리고 예를 들어 구빈원(Spitäler) 같은 디아코니 기관들의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 내었다. 콘스탄츠 지역의 암브로시우스 발러(Ambrosius Balrer)는 수도원 생활의 재편성을 위하여 그리고 성서에 일치하는 예배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방식으로 헌법을 기획하였다(1535년과 1536년). 재편성의 방식이든 새로운 형식

이든 어쨌든 많은 지역들에서 구체적인 빈민구제 사업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졌고, 종종 긴급 재난에 대한 대응 가운데 예를 들어, 섬유산업이 도산해 갈 때(라이덴, 멤밍엔 지역) 또는 홍수가 발생한 후에(비트마르숨) 빈민구제를 위한 주도적인 참여가 있었다.

IX. 주도적 역할을 한 여성 영주들, 여성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젊은 신학자들과 법조인들

신학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주의 아내들과 교육받은 여성들이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으로부터 종교개혁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나바라(Navarra)의 여왕 마가렛테 폰 앙굴렘(Magarete von Angoulême) 그리고 그의 딸이자 베아른(파우, Pau) 영지의 영주 알베르트 공자 부인 잔 달브레(Jeanne d'Albret)는 로마-가톨릭 교회 건물을 개신교 설교가들에게 개방한 공동교회를 장려하였다. 제네바 종교개혁가들과 연결하여 그녀들은 개혁교회 교회건물과 영지 건립을 추진하였고, "로마 가톨릭의 우상숭배"를 전화하는 노력에 동참하였다. 세계적인 도시인 엠덴(Emden)의 백작부인 안나 폰 오스트프리슬란트(Anna von Ostfriesland)는 오스트프리슬란트 지역의 모든 교회조직들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하여 폴란드의 인문주의자요 종교개혁 신학자였던 요한네스 알라스코(Johannes a Lasco)를 영적인 총책임자로 초청하였다. 새로운 노회 지도부가 세워졌다. 엠덴에서도 "옛신앙인들"과 온건하 재세례파들을 상대로 종교대화들이 조성되었다.

페라라(Ferrara)의 정원에서 르네 드 프랑스(Renée de France)는 귀족 부인들과 남자들이 모인 모임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콘스탄츠에서는 최상류층 가문들 가운데 하나인 블라러(Blarer) 가문이 인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교육이념으로 충만해 있었다. 멜랑히톤 그리고 루터의 절친했던 블라러 형제자매들은 교회와 학교제도를 새롭게 하는 일과 빈민구제사업을 갱신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로부터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았던 마가레테 블라러(Margarete Blarer) 마틴 부처와 지성적인 서신을 주고받았고, 가난한 여성들과 고아들을 위하여 디아코니 차원에서 간호사업에 참여하였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1523년 카타리나 첼(Katharina Zell)은 스트라스부르 뮌스

터 교회의 설교가의 아내로서 최초의 개신교 목사부인들 중의 한 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종교개혁 여성출판가이기도 했다. 그녀는 사제 독신제도의 철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였고, - 성령의 활동에 관한 성서의 증언들에 근거하여 -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여성들의 발언권과 동참권을 공개적으로 변호하였다. 그녀는 또한 신앙으로 인한 난민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일에만 참여하였을뿐만 아니라, 위로의 편지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도왔다. 그녀는 보헤미안 형제단의 영성에 영향을 받은 노래책을 출판하였고, 공개적인 박해에 반대하는 온건한 재세례파들을 변호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정신에 있어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젊은 신학자들과 법학자들의 지대한 영향이다. 그들은 자주 대학교육을 마친 후 곧바로 가르침과 설교와 교회지도에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위임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물론 필립 멜랑히톤과 요한네스 칼빈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젊은 종교개혁가들을 여기에 수 없이 많이 열거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데브레첸의 마르톤 칼만체히 산타 (Márton Kálmáncsehi Sánta), 크론슈타트의 요한네스 혼테루스와 발렌틴 봐그너, 슈베비쉬 할의 요한네스 브렌츠, 슈파이어의 미하엘 딜러, 투르쿠의 미하엘 아그리콜라, 비보르크의 한스 타우젠, 취리히의 훌드리히 츠빙글리와 하인리히 불링거를 들 수 있다.

X. 유럽의 국제화

소도시였던 비텐베르크는 “시민화된 세계의 중심지”요 새로운 종교문화의 출발지가 되었다. 1502년에 와서야 비로소 거기에 설립된 대학은 그 도시의 위대한 스승 루터와 멜랑히톤과 함께 1535년부터 1545년 사이에 4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전 유럽으로부터 끌어들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에서 가장 많이 찾는 대학이 되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예술가들 특히 크라나흐-학파의 예술가들은 독일을 넘어 광범위하게 종교개혁의 빛을 비추었다. 종교개혁 가르침을 대변했던 다른 대학들도 그와 동일한 정도의 지식인들과 학생들을 전 유럽으로부터 끌어들였다. 무엇보다도 하이델베르크, 마부르크 그리고 헤르본, 또한 켐브릿지 대학들이 여기에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경을 넘어 교육과 상호교류, 그리고 생활환경을 위한 국제적인 연결망 확립에 기여했던 것은 신학과 법학 그리고 인문학 분야의 교육이 지녔던 흡인력 외에도 핍박과 그로 인한 난민유입이기도 하였다. 엠덴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과 같은 도시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난민들을 수용함으로써 그 도시의 경제적 영향력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높여주었다. 자신들의 신앙적 신념들로 인하여 고국을 떠나 도망해야 했던 많은 학생들과 학문적인 교사들, 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폭넓은 문화능력과 언어능력들을 획득하여서 가장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새로운 인식들을 보급시켜 나갔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대한 힘을 보유한 베니스 또는 에딘버러 같은 세계적인 지역들 뿐만 아니라 크론슈타트와 투르쿠처럼 수많은 종족 그룹들로 이루어진 지역들은 종교개혁 정신과 논쟁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고, 전통유지와 문화적 관습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평가에 나서게 되었다.

XI.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갈등의 주제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 사이의 갈등의 주제들은 수 없이 많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가 종교개혁의 일으킨 사건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많은 주제들 가운데 하나의 주제에 불과하다. 새로운 종교적 개벽의 중심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지배적이었던 사변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신학에 대항하여, 그리고 그 신학이 가지고 있던 상이한 신관념에 대항하여 종교개혁가들이 수행했던 논쟁들이라고 볼 수 있다. 1518년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회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절대적인 규범적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성서의 증언에 맞추어 방향설정 하는 일에도 그러한 규범적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선구적인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서에 새롭게 초점을 맞춘 신학은 하나님 인식의 근원에 대한 접근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자 하였다. - 그와 반대로 사변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신학은 지배자들의 신학이요 지배에 중독된 자들의 신학으로 비쳐졌다. 강력했던 고해성사와 사제독신주의 또한 의문시 되었다.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또다른 논쟁적인 토론주제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즉, 빵과 포도주로 된 - sub utraque) 성만찬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전통적인 교회의 자세였다. 물론 이것은 성서의 말씀과는 분명하게 위배된다 것이었다. 또한 마리아 숭배, 성인숭배 그리고 성장에 얽힌 전설들의 전승, 또한 장미십자가-경건의식과 연옥에 관한 교리, 이 모든 것들은 비성서적이며 성서와는 거리가 먼 과장된 것으로서 거부되었다. 라틴어로 드려진 미사

와 행진들, 그리고 교회와 (자주 수없이 많이 존재한) 소제단에 걸려 있던 넘쳐나는 성화들을 제거할 것을 종교개혁은 요구하였다. 불의한 경제적 특권들과 분명한 이중윤리가 사제중심주의적인 지배권과 결합된 곳에서 논쟁이 특히 격렬하게 일어났다. 사회적 문제들과 열악한 교육환경이 지도력이 결핍된 교회의 능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때 또한 논쟁이 일어났다.

교황의 의문스러운 권위에 대한 비판, 계급제도적인 사제직에 대한 비판, 그리고 수도원들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은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의 제사장직에 근거한 것이었다. 성서에 집중하는 가르침과 선포가 검은 복장의 남성주의를 교회로부터 추방해야만 하였다. 교회 재판의 우선권은 의문에 부쳐졌다. 그리고 수많은 영역에서 정경적인 법과 교회의 법적인 판결은 세속적인-지도층의 법적인 판결에 의해 대체되었다. 종교개혁은 많은 발전을 가운데 권력분배를 통하여 자유를 준비하였다. 즉, 정치, 법적 판결, 학문 그리고 교회-종교적인 문제들의 지도층이 독점되지 않을 때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가 최상으로 확대된다.

XII. 프로테스탄트 내의 갈등 주제들

이미 1520년에 루터와 그 사람 즉, 루터와 나란히 1518년부터 1522년 사이에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 사람은 루터의 박사 지도교수였던 안드레아스 루돌프 보덴슈타인(Andreas Rudolf Bodenstein)이었는데, 프랑스의 칼슈타트(Karlstadt)에서 왔다고 하여 일명 칼슈타트로 불린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성서정경의 불가침성이 관건이었다. 루터는 야고보서가 “행위구원”을 대변한다고 보고, 야고보서의 정경적 권위를 의심하였었다. 루터의 동료 칼슈타트는 여기에 성서의 권위가 침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뿐만 아니라 어린이 세례와 세례단에 대해서도 견해차이가 있었고, 또한 성만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해서도 의견차이를 보였다. 신비신학에 깊은 감명을 받은 칼슈타트는 루터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성숙과 교회공동체의 권위를 강조하였다. - 이는 멜랑히톤과 루터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교육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신의 교회공동체였던 오를라뮌데에서 칼슈타트는 “안드레아스의 형제”로서 모든 평신도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천을 발전시켰다.

이 모든 주제들은 프로테스탄트 내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들이 되었다. 사회적

갈등들과 긴장들은 그러한 논쟁들을 더욱 부추기고 첨예하게 만들었다. 성만찬 안에 그리스도의 인재에 관한 논쟁은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사이의 중심적인 갈등이 되었다. 필립 폰 헤센(Philipp von Hessen)은 1529년 마부르크에서 (논쟁적인 문서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1526년에 시작된 대토론회 뒤에) "루터파와 쯔빙글리파 사이에 중도의 길"을 찾았으나, 그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발전은 1536년 비텐베르크 합의서(Wittenberger Konkordie)였다. 그러나 1973년 로이엔베르크 콘코디(Leuenberger Konkordie)에 와서야 비로소 프로테스탄트 내의 합일을 이루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첨예한 갈등들을 야기했던 것은 "내적인 영적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신학적 권위에 의존하였으며 중신된 신앙내용들을(예를 들어 삼위일체론,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가르침) 의문시했던(예를 들어 베니스,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북부지방을 일컫는 지벤뷰르겐(Siebenbürgen)의 반삼위일체론자들; 제네바의 미하엘 세르베) 경건주의 운동들이었다(예를 들어, 세바스티안 프랑크 그리고 울룸의 카스파 폰 슈벵크펠트). 갈등은 또한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성인세례를 거행하는 것으로부터도 발생하였는데, 그러한 유아세례 거부는 자주 제세례파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동반하고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들은 해방운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결국에는 폭력적인 저항운동들 형태로 극단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저항운동들은 경제적이나 실존적으로 억압해오는 부정과 위기에 대항해서도 일어난 것이었다. 뮐하우젠(Mühlhausen), 뮌스터(Münster), 멤밍엔(Memmingen), 그리고 다른 지역들이 그러한 극단화의 중심지들이었다.

1525년 봄 흡인력의 중심지였던 멤밍엔이 속해있던 오버슈봐벤(Oberschwaben)에서 유럽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 이전에 가장 큰 혁명이 일어났다. 추정컨데 50,000명의 봉기 농민들이 "12개의 항목으로" 요구한 것은, 노예신분의 철폐, 교회공동체를 통한 목사 선출, 귀족이나 교회영주들의 통치권을 "공동의 정부"왜 대체할 것, 그리고 다른 자유권리들의 실현이었다. 수 천명의 농부들이 귀족 군대와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종교개혁사가인 헤이코 오버만(Heiko A. Obermann)은 비텐베르크, 취리히 그리고 제네바 외에 메밍엔을 "제4의 종교개혁 중심지"로 보고자 했다.

급진적 재세례파 운동들은 - 예를 들어 뮌스터에서 재단사였던 얀 반 라이덴(Jan van Leiden)은 자신을 왕으로 부르게 했고, 무엇보다 화폐를 철폐하였고, 십계명을 어길시 사형에 처하였고, 새로 태어난 모든 어린이를 위하여 이름을 지을 권

리를 자처하였다 - 물론 개별적인 사건들로 남았지만, 종교개혁의 신망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오늘날까지도 재세례파들과의 불만족스러운 논쟁, 농부들의 위기에 종교개혁가들의 냉담한 반응, 그리고 언제나 다시금 불씨가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는 종교개혁의 어두운 측면에 속한다. 폭력의 준비가 되어있는 농부들과 재세례파들로부터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폭력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의 적들로부터 메노나이트 운동은 구별된다. 메노나이트 운동은 - 오늘날까지 - 일관성있게 평화신학과 평화윤리를 대변하고 있다(보라. 비트마르숨[Wittmarsum]의 메노 시몬스[Menno Simons]).

또한 비폭력 저항과 에큐메니컬적인 평화공존으로 가는 길들에 관한 수많은 다른 증언들도 종교개혁의 하이라이트에 속하는 것이다. 극적인 공개재판들, 공개처형들 그리고 화형들 심지어 사후에도 공개적으로 관을 불태우고 처형하는 사건들이(안트베르펜, 아욱스부르크, 에딘버러, 페라라, 옥스퍼드 등등) 지난 후에 많은 지역들이 임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신앙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로부터 온 난민들을 수용하였던 도시들이 되었다. 아욱스부르크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처음으로 큰 성공을 거둔 뒤 모든 교회들을 빼앗긴 이후로는 야외에서14년동안이나 인내하면서 평화로운 예배를 드렸다. 다른 지역으로 개신교 “예배를 위하여 야외로 나간” 것에 관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다(예를 들어 1649년에도 메리아스 폰 빈). 폭풍과도 같은 종교개혁 발발 뒤에 몇몇 나라들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핍박과 인내가 뒤따랐다 - 종교개혁에 의해 지속적인 영감을 받은 평화적인 에큐메니컬적 삶으로 향하는 도상에 있었던 것이다.

XIII.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들에게도 감사해야 할 생각들

종교개혁의 감동적인 신학적 통찰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의 동력들은 오늘날 무엇보다도 **비텐베르크**(마틴 루터의 필립 멜랑히톤과 함께), **취리히**(훌트리히 츠빙글리와 하인리히 불링거와 함께), 그리고 **제네바**(요한네스 칼빈과 테도도르 베자와 함께)라는 지역들, 그리고 **1517**년(루터의 비텐베르크 반박문) 이후로 시작된 발전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백여년 이전에 이미 독일, 스위스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 종교개혁의 발단이 있었고, 종교개혁의 중심적인 인식들 중 다양한 것들이 이미 획득되어 있었다. 특히 옥스퍼드와(무엇보다 죤 위클리프), 프라하(얀 후스)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더 일찌기는 리용 출신의 페트루스 왈도와 왈도파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미 그 당시에 강조되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인간군상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성

서가 모든 교회의 가르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서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의 자국어로 설교되고 가르쳐져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인간의 성숙도가 강조되었고, 성만찬 때 모든 교회지체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몇몇의 종교개혁가들에 와서야 비로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위 "전종교개혁가들"도 이러한 자유케하는, 그러나 이단으로 여겨졌던 인식들을 유포시켰다가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전세계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번역: 박성규(장신대)